

『三國遺事』와 스토리텔링

—동서양 이야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채경*

|| 차례 ||

1. 서론
2. 『삼국유사』와 스토리텔링 樣相
 - 2.1. 野談에 전승된 스토리텔링
 - 2.2. 神話와 유사한 스토리텔링
3. 스토리텔링 原形으로서 『삼국유사』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서양 說話와 野談 및 神話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스토리텔링 原形으로서 『삼국유사』의 가치와 위상을 가늠해 보았다.

먼저 설화 <거타지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승되어 <화포장 이야기>를 낳았고, 스토리 성격이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奇異談에서 致富談으로 바뀌었다. 또 <거타지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페르세우스 이야기>와 유사한 스토리 전개 양상을 보였는데, 동서양의 서로 다른 정서와 인식을 반영한 報恩談과 結緣談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설화 <김유신 이야기>는 역사서에 나오는 미추왕 죽엽군 이야기를 포함해 야담에 전승되어 새로운 이야기로 변개되었으며, 당초 미추왕과 김유신의 護國談에서 이후 儒者로서 김유신의 면모를 강화한 正義談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경문왕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미다스 왕 이야기>와 흡사한 내용인데, 두 이야기는 모두 비밀과 발설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압박과 사물의 생태적 특징이 기저에 깔려 있으며, 특히 <경문왕 이야기>는王者가 民心을 듣는 신체기관으로서 ‘귀[耳]’를 강조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설화와 야담의 전승관계를 밝히고, 서양의 신화와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寶庫이자 原形으로 평가된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초빙교수. youyoung149@hanmail.net

주제어 : 『삼국유사』, 설화, 야담, 신화, 스토리텔링, 원형 등

1. 서론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품으로, 특히 문학적으로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古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고전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마저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는 과거에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들이며, 최근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고려시대에 출현한 『三國遺事』¹⁾도 고전의 범주에 드는 명작이다. 흔히 『三國史記』는 전대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正史로, 『삼국유사』는 정사에서 빠진 사건을 채록한 野史로 평가된다. 역사서로서 文章의 가치 기준을 사실과 교훈에 둔다면 前者에 힘이 실리겠지만, 戒世懲人을 목표로 하면서도 허구와 흥미를 보탠 작품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後者に 엄지를 치켜세울 것이다. 특히, 人情物態를 담아낸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라면 그 재미와 교훈은 倍加된다.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고대 왕조의 성립부터 역대 인물의 기이한 경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펴낸 一然(1206~1289)은 당시 민간과 사찰에 전해지던 이야기를 폭넓게 다루면서, 그 속에 담긴 인생, 사상, 종교, 지리, 언어, 풍속 등을 재미난 이야기로 엮어냈다. 나아가 유학적인 관점에 따라 역사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설화적·불교적 요소를 보완하여 기존의 이야기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하였다.²⁾

1) 『삼국유사』는 1281년경 一然(1206~1289)이 저술한 5권 2책의 역사서로, 여러 이본 가운데 ‘정덕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총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는 ‘王曆·紀異·興法·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 등이다.

2) 『삼국유사』를 수차례 번역 출간한 김원중은, “『삼국유사』는 역사서이자 불교 문화서요, 야담과 설화의 모음집이자 소중한 문학서이고, 문사철(文史哲)이 관통된 인문서”라고 평가했다. 김원중, 『삼국유사』, 민음사, 2007, 15면 인용.

그 동안 『삼국유사』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다채로운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³⁾ 그럼에도 所載 작품을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로 파악하고, 설화 속 근원이야기를 저자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했는지, 또 일부 이야기가 후대에 어떤 형태로 전승되었는지⁵⁾ 등은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1세기 들어 미디어와 문화예술 전반에서 스토리텔링이 크게 각광받고 활용되는 요즘,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원형이라고 할 『삼국유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3) 『삼국유사』는 일찍이 文學 및 史學 그리고 民俗學 등에서 풍성한 연구 성과를 얻었다. 문학계에서는 ‘說話’를 중심으로 장르 및 주제와 구성을 분석하였고, 사학계에서는 ‘三國과 高麗’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해석을 내놓았으며, 민속학계에서는 ‘전통 신앙과 佛敎’를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본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 성과만 간략히 제시한다. 박유미, 「〈진성여왕대 거타지〉 설화에 나타난 사회구조와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119-147면; 임태웅, 「『삼국유사』 「기이」 편과 바다」, 『동북아문화연구』 제4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65-85면; 이규훈, 「‘거타지’ 설화의 문화콘텐츠 창작과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119-127면; 전기웅,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大王居隨知’조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제38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217-251면; 정연식, 「거타지 설화의 새로운 해석」, 『동방학지』 제160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169-209면; 정한국, 「한국 초기서사의 複數 구도」, 『민족문화사연구』 제59집,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147-182면; 표정옥, 「『삼국유사』 스토리텔링의 문화콘텐츠 생성 욕망과 신화적 독서의 생산성 연구 - 서정주의 <삼국유사> 해석의 시정신을 중심으로」, 『동방학』 제27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3, 7-38면.
- 4) 『삼국유사』는 고대부터 일연의 생존 시기까지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을 비롯하여 민간에 전해지던 설화를 채록한 책이므로 일연을 著者가 아니라 編者로 지칭해야 옳을 듯하다. 특히, 설화가 구술로 창작 향유된 이야기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연은 편찬자 내지는 기록자에 그친다. 그럼에도 일연을 저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기존의 이야기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한 양상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 5) 『삼국유사』 소재 이야기의 후대 전승에 대한 연구는 ‘居隨知說話’가 ‘作帝建說話’에 연관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을 뿐, 여타 장르로는 연구 범위나 논지 전개가 확산되지 못했다. 필자는 野談 연구자로서 설화가 야담에 전승된 사례를 다수 포착하였고, 본고에서는 특히 『삼국유사』 소재 작품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특징을 조명한다. 이채경, 「18세기 야담의 서사방식과 주제구현 - 『雜記古談』, 『東稗洛誦』, 『雪橋漫錄』, 『鶴山閑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이에 필자는 『삼국유사』에 실린 몇몇 이야기를 선별⁶⁾하여 잘 알려진 동서양 이야기와 비교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특징 및 가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는 ‘居陁知 이야기’를 비롯하여 ‘金庾信 이야기’와 ‘景文王 이야기’ 등이며, 이를 중심으로 동서양 설화와 야담, 설화와 신화에 주목하여 그 스토리텔링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야담은 조선후기 柳夢寅의 『於于野談』⁷⁾과 任埜의 『天倪錄』⁸⁾ 소재 작품을, 신화는 토마스 불핀치(Tomas Bulfinch)의 『그리스 로마 신화』⁹⁾ 소재 이야기를 활용한다.

이제 동서양 스토리텔링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원형으로서 『삼국유사』에 관해 알아본다.

2. 『삼국유사』와 스토리텔링 樣相

-
- 6) 『삼국유사』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지만, 본고에서 스토리텔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선별한 자료는 대부분 ‘奇異’편에 수록된 이야기들이다. 이는 필자가 설화와 야담의 연관성을 탐색하면서 동일한 화소에 유사한 스토리텔링을 발견하는 과정에 우연히 도출된 결과일 뿐, 논지에 맞춰 의도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서양의 신화도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포착된 이야기들임을 미리 밝혀둔다.
- 7) 『於于野談』은 1622년 柳夢寅(1559~1623)이 저술한 5권 1책의 필기·야담집으로, 40여 종의 이본 가운데 최선본으로 알려진 ‘만중재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권제는 ‘인륜·종교·학예·사회·만물’ 등이며, 총520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야담’이라는 書名이 붙어 야담 문학의 효시로 불리지만, 筆記的 성격이 강한 작품집이며, 原著에는 제목이 없지만 필자가 내용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붙였다.
- 8) 『天倪錄』은 1717~1724년경 任埜(1640~1724)이 저술한 순수 야담집으로, 4종의 이본 가운데 최선본으로 알려진 ‘천리대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야기는 총62편인데, 저자는 대부분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을 집중 수록하였다. 또 각 편마다 7字的 제목을 붙이고, 2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評語를 부록하여 남다른 작가의 식을 드러냈다.
- 9) 『그리스 로마 신화』는 1855년 토마스 불핀치(1796~1867)가 저술한 신화집으로, 원제는 ‘신화의 시대(The Age Of Fable)’이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1840년경에 구스타프 슈바브(1792~1850), 뒤에 1942년 에디스 헤밀턴(1867~1963)이 출간한 책도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토마스 불핀치의 작품이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재미난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창작하고 향유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 [story]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telling]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유행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¹⁰⁾은 口述性에 근거한 설화와 야담 및 신화 등 수많은 문화유산의 원형이야기를 차용해서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친근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다.¹¹⁾

2.1. 野談에 전승된 스토리텔링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유사』에는 당시까지 민간에 널리 퍼져 전해지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이야기들 중 일부가 조선후기 야담에까지 전승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아무래도 이야기 소재가 前代 설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스토리가 약간 변개된 양상으로 전해지는데, 시대 변화와 역사 해석 등을 반영한 敍事 요건이 달라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괴물을 퇴치한 신라의 弓士 ‘거타지’ 이야기와 삼국통일의 主役 ‘김유신 장군’ 이야기다.

2.1.1 居陔知와 火砲匠 이야기 : 奇異와 致富

10)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고대부터 ‘口述’의 의미로 오랫동안 존재해 온 개념으로, 서사학 용어로는 스토리(story)와 담화(discourse)에 해당되며, 문자 문화의 내러티브(narrative)와 달리 구술적인 특성을 띠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김정희,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viii면 참조.

11) 본고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현전하는 이야기 중에 동일한 話素를 매개로 유사한 서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한정된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民衆에 口述되는 과정에서 ‘스토리’의 일정 부분이 무수히 變改되어 ‘텔링’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양상은 時空을 초월하여 현재 진행형이다.

신라는 당나라와 교류가 무척 활발해서 국내외에 大小事가 생길 때마다 빈번히 왕래하였다. 진성여왕 때는 왕자 良貝¹²⁾를 당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바닷길에 백제의 해적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고 使行船을 보호할 요량으로 궁사 50명을 동행하였다. 거타지¹³⁾는 당시 사행에 참여한 인물이었다.¹⁴⁾

다음은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王代 居陁知> 중에 <거타지 이야기>¹⁵⁾로, 거타지의 신기한 모험이 시작되는 대목이다.

이 眞聖女王 시대에 아찬 良貝는 왕의 막내아들[季子]이었다. 그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백제의 해적이 津島를 막고 있다는 말을 듣고 弓士 50명을 뽑아 따르게 했다. 배가 鶴島【지방에서는 骨大島라 한다】에 도착하자, 바람과

-
- 12) 설화에서 사신 양패는 진성여왕의 막내아들[季子]로 설정되었으나, 사실 진성여왕은 아들이 없어서 오빠 憲康王의 서자[孝恭王]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는 전래 이야기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한 경우라고 해석되는데, 설화의 스토리텔링에 관해서는 본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일부 연구자는 당시 사신의 신분이 ‘실제 왕자’가 아니라도 사신의 호칭을 관습상 ‘왕자’로 기록했다고 한다.
- 13) 전기용은 ‘거타지’에서 ‘居陁’는 ‘康州(晉州의 옛 이름)’이고, ‘知’는 이름 뒤에 붙여 ‘우두머리의 존칭’으로 사용된 신라말이며, 따라서 거타지는 ‘康州人’ 또는 ‘강주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라고 했다. 전기용,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王代居陁知’조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제38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233-234면 참조.
- 14) 정연식은 ‘거타지 설화’를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양패 이야기는 28수 가운데 필수(畢宿) 주변 별자리 이야기와 잘 연결되고, 거타지 이야기는 시리우스(Sirius)라고 부르는 낭성(狼星) 주변의 별자리 이야기와 아주 잘 부합한다. 설화는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를 역사적 상황을 덧붙여 정교하게 가공한 이야기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연식, 「거타지 설화의 새로운 해석」, 『동방학지』 제160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171면 인용. 그의 주장에 관련된 별자리 그림은 17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 15) 박유미는 “『삼국유사』의 <진성여왕대거타지>조에는 왕거인 이야기와 거타지 이야기가 하나의 설화에 묶여 전하고 있는데, 두 이야기는 해결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서술자 일연은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조합시켰다.” 따라서 “그는 거타지 이야기와 같이 계층간 연대와 화합을 통해서만이 혼란한 시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박유미, 「<진성여왕대 거타지> 설화에 나타난 사회구조와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119-147면 참조.

파도가 크게 일어 열흘 넘게 머물렀다. 공이 걱정스러워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섬에 神池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가에 제물을 차려 놓자, 못의 물이 한 길 남짓 높이 솟구쳤다.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공에게 말했다. “활 잘 쏘는 한 사람을 이 섬에 남겨 두면 順風을 만날 것이다.” 공은 꿈에서 깨어나 그 일을 좌우에 알리고 물어보았다. “누구를 남겨 두면 좋겠는가?”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마땅히 木簡 50 개에 우리 이름을 써서 바닷물에 가라앉는 것으로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공은 그 말을 따랐다. 군사 가운데 居陁知라는 자의 이름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이윽고 그 사람을 남겨 두었더니, 갑자기 순풍이 불어 배가 거침없이 나아갔다.

거타지가 걱정스러워하며 섬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못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로 西海의 若이라오. 매번 한 沙彌가 해 뜰 무렵에 하늘에서 내려와 陀羅尼를 외면서 이 못을 세 바퀴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로 떠오른다고. 사미가 내 자손들의 肝腸을 모두 먹어버려 이제는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이면 기필코 또 올 테니, 청컨대 그대가 쏘아 주시오.” 거타지가 말했다. “활 쏘는 일이야 내가 잘하는 것이니, 명을 따르겠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감사하면서 사라졌고, 거타지는 몰래 엿드려서 기다렸다. 이튿날 동녘이 밝자, 과연 사미가 오더니 이전처럼 呪文을 외면서 老龍의 간을 빼먹으려 했다. 이때 거타지가 활을 쏘아 사미를 맞히자, 즉시 늙은 여우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다.¹⁶⁾

동서양 說話[神話·傳說·民譚]에는 유난히 영웅의 이야기가 많다. 그 중에는 용감한 주인공이 괴물을 퇴치하고 美人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가끔 등장한다. 신라 설화 <거타지 이야기> 역시 海島에서 마주친 괴물을 활로 쏘아 죽이

16) 『三國遺事』 卷2, 紀異2, <眞聖女王代居陁知>. 此王代, 阿浪良貝, 王之季子也. 奉使於唐, 聞百濟海賊梗於津島, 選弓士五十人隨之, 船次鵠島[鄉云骨大島]風濤大作, 信宿狹旬. 公患之, 使人卜之, 曰, “島有神池, 祭之可矣.” 於是, 具尊於池上, 池水湧高丈餘, 夜夢有老人, 謂公曰, “善射一人, 留此島中, 可得便風.” 公覺而以事咨於左右曰, “留誰可矣?” 衆人曰, “宜以木簡五十片書我輩名, 沈水而鬪之.” 公從之. 軍士有居陁知者, 名沈水中, 乃留其人, 便風忽起, 船進無滯. 居陁愁立島嶼, 忽有老人, 從池而出, 謂曰, “我是西海若, 每一沙彌, 日出之時, 從天而降, 誦陀羅尼, 三繞此池, 我之夫婦子孫, 皆浮水上, 沙彌取吾子孫肝腸, 食之盡矣. 唯存吾夫婦與一女爾, 來朝又必來, 請君射之.” 居陁曰, “弓矢之事, 吾所長也, 聞命矣.” 老人謝之而沒, 居陁隱伏而待. 明日, 扶桑既暎, 沙彌果來, 誦呪如前, 欲取老龍肝. 時居陁射之, 中沙彌, 卽變老狐, 墜地而斃.

고 龍女의 목숨을 구했다는 스토리로 요약된다. 이런 유형의 스토리 전개는 고려 태조의 할아버지 ‘作帝建’의 영웅담에도 보이는데, 그 또한 괴물을 물리친 보답으로 美女를 얻은 인물로 등장한다.¹⁷⁾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도 페르세우스가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안드로메다를 바다괴물에게서 구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스토리를 포함한다.

이처럼 유사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스토리가 <거타지 이야기>에서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의 제시문과 함께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배가 鵝島에 도착하여 바람과 파도 때문에 열흘간 머물렀다.
- ㉡ 良貝가 占을 치게 했더니, 神池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 ㉢ 꿈에 노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했다.
- ㉣ 木簡에 이름을 써서 물에 가라앉은 사람을 찾아 제비를 뽑았다.
- ㉤ 섬에 남겨진 거타지에게 海神이 나타나서 사연을 들려주었다.
- ㉥ 거타지가 沙彌에게 활을 쏘자, 사미가 늙은 여우로 변해 죽었다.¹⁸⁾
- ㉦ 노인이 딸을 꽃송이로 만들어 주고, 龍이 배를 호위하여 唐나라로 들어갔다.
- ㉧ 신라로 돌아와서 간직했던 꽃송이가 여인으로 변해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는 설화의 특성상 초현실적인 상황과 비현실적인 우연이 겹쳐진 스토리 구성을 보인다.¹⁹⁾ 거센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神池에 제사를 지내라

17) 작제건 설화는 거타지 설화가 동일한 모티브와 유사한 내용으로 가공된 것인데, 주인공이 龍을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이고 龍女와 결연하는 스토리는 두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전기웅은 두 설화 속 사건이 몰락기에 접어든 진성 여왕대의 王巨人 사건에 출발점을 두었으며, 각기 康州의 王逢規와 松岳의 王建이라는 해양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전기웅(2010) 앞의 논문 217-218면 참조.

18) 앞 인용문에서 밑줄 친 대목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어지는 <화포장 이야기>에서 괴물을 죽이는 인용문과도 겹쳐지는 부분이다.

19) 설화에 무수히 등장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나 비현실적인 우연은 중국 唐代에 출현한 傳奇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필자는 조선시대 전기소설에 보이는 삽입시의 양상과 의미를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채경, 「傳奇小說 挿入詩의 미

는 점괘가 나온 것, 꿈에 노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 목간으로 제비를 뽑았을 때 ‘거타지’의 것이 가라앉은 상황은 비현실적인 우연이다. 또 실제로 海神이 나타나 ‘사미’에게 친족을 희생당했다는 사연을 들려주는 것, 거타지가 활을 쏘아 맞힌 사미가 ‘늙은 여우’로 변해 죽는 것은 초현실에 가깝다. 게다가 노인이 자기 ‘딸’을 꽃송이로 만들어 주었는데, 나중에 그 꽃송이가 다시 ‘여인’으로 변했다. 이처럼 환상적인 스토리는 후대에 어떤 양상으로 변모되었을까?

海路를 이용하여 중국을 다녀오고, 뱃길에 풍랑을 만나 외딴 섬에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후기 野談에 그대로 전승되었다. 물론 주인공이 ‘신라의 궁사’에서 ‘조선의 화포장’으로 바뀌고, 괴물의 실체가 ‘늙은 여우’에서 ‘큰 이무기’로 바뀌었지만, 결국 괴물을 퇴치하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설정이 유사하다. 『어우야담』에 실린 <화포장 이야기>를 살펴본다.

큰 이무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크기는 커다란 대들보나 뗏목만 하고, 길이는 몇 백 자인지 알 수 없었다. 이무기는 섬에 있으면서 꿈을 잡거나 사슴 및 돼지를 몰아서 그것을 삼켰으며, 바닷속에 들어가서는 큰 물고기와 게딱지를 잡아 먹었다. 이무기가 지나간 길은 큰 도랑을 이루어 큰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다. 화포장은 큰 칼을 새로 갈아서 길 가운데에 줄지어 세워놓고, 칼자루 위의 칼날까지 모두 땅에 묻었다. 다음날 저녁에 그 이무기가 과연 바다에서 섬으로 들어오다가 턱부터 꼬리까지 모두 칼에 찢려 찢어지면서 진주와 옥돌 및 야광주 등속이 땅에 쏟아져 나와 길에 쌓여 가득했다. 며칠이 지나 또 바람결에 비린내와 썩은내가 코를 찢러 그 냄새를 찾아서 따라가 보니, 큰 이무기가 숲속에 죽어 있는 것이 보였다.²⁰⁾

위의 인용문은 화포장이 이무기를 죽이는 과정을 서술한 대목이다. 설화

학적 의미’, 『국제언어문학』 제35호, 국제언어문학회, 2016, 5-31면 참조.

20) 『於野談』, <火砲匠 이야기>. 有一大鱗, 其大如鴻梁巨桴, 長不知幾百尺, 在島中, 捕熊驅鹿豕而吞之, 入海中, 趁脩鱗穹而甲食之. 其行路成一溝, 可容大船, 火砲匠新磨大劍, 列植于路中, 皆埋柄上刃, 翌晚, 其鱗果自海入于島, 從頷至尾, 皆爲劍銳所裂, 珠璣·琅玕·夜光·火齊之屬, 迸瀉于地, 委積充蹊. 越數日, 又薰風腐臭透鼻. 尋其氣而往, 見大鱗死于林中.

<거타지 이야기>에서 거타지가 괴물을 죽이는 장면은 무척 간략하게 묘사되었다. 즉, 사미가 다라니를 외면서 노인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자, 거타지가 활을 쏘아 적중시켰는데, 사미가 늙은 여우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다²¹⁾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야담 <화포장 이야기>에서 화포장이 이무기를 죽이는 과정은 꽤 길어진 장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먼저 이무기가 매일 새벽 산마루를 울리며 바다로 빠져 나갔다가 해가 저물면 파도를 일으키며 섬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였다. 뒤이어 바다에서는 헤엄을 치며 돌아다니지만, 물에서는 배를 끌며 드나들 수밖에 없는 이무기의 습성을 파악하고, 이무기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보이지 않도록 칼을 파묻어 놓았다. 또 본래는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이무기를 처치하기로 결심했겠지만, 무엇보다 이무기가 섬에 있는 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바다생물마저 모조리 잡아먹는 바람에 결심을 굳힌 듯하다.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화포장의 계획은 차질없이 실행되었고, 칼날에 찢긴 괴물의 뱃속에서는 진귀한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화포장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무인도에 정박했던 배가 출발할 때쯤 빙빙 돌면서 나아가지 않았다.
- ㉡ 동승한 사람들이 배 안에서 水厄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 ㉢ 火砲匠이 배에서 내리자, 배가 갑자기 앞으로 쭉욱 나아갔다.
- ㉣ 생필품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뱃길에 태워가기로 하고 헤어졌다.
- ㉤ 큰 이무기가 혼자 남은 화포장을 위협하고 섬 주변을 초토화시켰다.
- ㉥ 화포장이 큰칼을 바다로 향하는 길에 설치해 이무기가 찢려 죽었다.
- ㉦ 이무기의 뱃속에서 보물이 쏟아져 나와 꾸러미에 보관하였다.
- ㉧ 조선으로 돌아오는 배에 싣고 와 시장에 내다 팔아 부자가 되었다.

두 이야기는 사건의 전말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인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배에 동승한 사람들을 구하자는 의견은 같지만, 희생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거타지 이야기>에서는 이름을 적은 목간을 바닷물에 넣어 가

21) 『三國遺事』 卷2, 紀異2, <眞聖女王代居陔知>. 明日, 扶桑旣暾, 沙彌果來, 誦呪如前, 欲取老龍肝. 時居陔射之, 中沙彌, 卽變老狐, 墜地而斃.

라앉는 사람을 섬에 남겨두지만, <화포장 이야기>에서는 각자 차례대로 배에서 내려 배의 움직임을 살핀 다음 희생자를 결정하였다. 또 거타지는 노인의 기막힌 사연과 부탁을 접하고 괴물을 없애기로 결심했지만, 화포장은 무인도의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괴물을 처단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거타지 이야기>에 자잘한 스토리가 더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풍량이 멎지 않는 원인을 찾기 위해 점을 쳐서 ‘신령스러운 못에 제사를 지내라’는 점괘를 얻은 스토리가 하나, 수많은 친족을 잃고 마지막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陀羅尼²²⁾를 외며 肝腸을 빼 먹는 沙彌²³⁾를 죽여 달라’는 노인의 간청이 담긴 스토리가 또 하나, 늙은 여우가 변신한 사미를 죽이고 ‘보답으로 노인의 딸을 얻어 돌아오’는 스토리가 마지막 하나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괴물을 퇴치하고 미인을 얻은 설화 속 奇異談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반면에 <화포장 이야기>는 가난한 화포장이 使行에서 우연히 괴물을 죽이고 재물을 얻은 야담 속 致富談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조선후기 사행에는 譯官이나 화포장 등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조선과 중국의 물건을 거래하는 私貿易이 성행하였고, 야담에는 그러한 정황을 담아내면서 致富하는 과정의 한 방편으로 괴물퇴치담을 스토리에 삽입한 것이다. 이처럼 설화에서 야담으로 전승된 거타지 이야기는 시대상과 사회상을 잘 반영하여 스토리텔링 되었다.

2.1.2. 味鄒王과 金庾信 이야기 : 護國과 正義

신라의 삼국통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功臣이라면 누구나 김유신 장군을

22) 전기웅에 따르면, “본래 다라니는 긴 경전에 실려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짧게 요약한 것을 말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형식상의 유사함 때문에 주문(呪文)까지도 다라니로 통칭되었으며, 길이에 따라 짧은 것은 진언(眞言) 또는 주문(呪)라 하고, 긴 것을 다라니 또는 대주문(大呪)라 하였다.”고 한다. 전기웅(2010) 앞의 논문 231면 각주28) 인용.

23) 또 전기웅은, “(사미가) 승려를 가장한 여우라는 설정이지만, 이 대립구조는 전통 신앙인 용신신앙과 외래의 불교신앙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보는 편이 좋겠다.”라고 했다. 앞의 논문 236면 각주41) 인용.

으뜸으로 꼽는다. 그는 남다른 재주와 기량을 타고난 武將이고, 평소 그가 남긴 기이한 行蹟과 빼어난 功業은 『삼국사기』 「列傳」²⁴⁾에 방대한 분량으로 실려 전한다. 그밖에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수많은 소재와 사건이 조직되면서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져 설화와 야담에 흡수되었다. 지금 살펴볼 이야기는 김유신의 혼령이 竹現陵에 나타나 미추왕에게 자기 공적과 자손의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이후 37대 惠恭王 大曆 14년 己未年(779) 4월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金庾信 공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무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준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장군처럼 위용을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갑옷 차림에 무기를 든 자 40명가량이 따라 와서 竹現陵으로 들어갔다. 얼마 있다가 능 안에서는 진동하고 소리 내어 우는 듯한 소리, 간혹 호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은 이러했다.

“臣은 평생 동안 시대의 환란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태어 통일을 성취한 공이 있으며, 지금은 혼백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재난을 물리치려는 마음을 잠시도 고쳐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庚戌年(770)에 신의 자손이 罪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군주나 신하가 저의 功烈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서 다시는 부지런히 힘쓰지 않을 테니, 바라건대 왕께서는 윤희해 주십시오.”

그러자 味鄒王이 대답했다.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찌 되겠는가? 공은 다시 예전처럼 노력해 주시오.” 세 번 청해도 세 번 다 허락하지 않고, 회오리바람은 이내 돌아갔다. 혜공왕은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여 大臣 金敬信을 보내 김유신 공의 무덤에 가서 사과하고, 功德寶田 30結을 鷲仙寺에 하사하여 명복을 빌게 했다.²⁵⁾

24) 『三國史記』 卷42, 列傳2 <金庾信>(上·中·下)에 그의 특별한 생애가 온전히 담겨 있으며, 『삼국유사』 소재 <味鄒王 竹葉軍>을 비롯하여 <萬波息笛>과 <金庾信> 등에도 그의 기이한 행적이 실려 전해진다. 정환국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서사를 ‘志怪서사·靈驗서사·傳記서사·傳奇서사’로 분류하고, 특히 “<김유신>은 ‘지괴서사와 영험서사의 혼효, 또는 경계에 있는 작품’이며, “김유신은 지괴서사와 영험서사, 그리고 傳記서사를 횡단하며 초기의 서사 인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국, 「한국 초기서사의 복수(複數) 구도」, 『민족문학사연구』 제59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147-182면 참조.

25) 『三國遺事』 卷1, 紀異1, <味鄒王竹葉軍>. 越三十七世, 孝恭王代, 大曆十四年己

위 제시문은 『삼국유사』 소재 <味鄒王 竹葉軍> 중에 <김유신 이야기>의 全文으로, 死後에 나타난 그의 奇行異蹟을 담고 있다. 김유신은 어려서는 명산대전을 유람하며 화랑도를 닦고, 자라서는 金春秋[太宗武烈王]와 교유하며 누이를 혼인시키고, 드디어 백제와 고구려 戰場을 떠돌며 백전백승의 장군이 되고, 마침내 文武王代에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성취한다. 이처럼 그가 살아서 누린 명성과 영화는 죽어서 ‘興武大王’으로 추존되는 데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설화 속 <김유신 이야기>에 따르면, 불행히도 사후에는 자손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업적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위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회오리바람이 일어 죽현릉으로 불어갔다.
- ㉡ 그 속에 진동하는 소리, 뿔하며 우는 소리,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 ㉢ 김유신 장군이 공훈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미추왕에게 알렸다.²⁶⁾
- ㉣ 미추왕이 공로를 인정하며 그를 慰撫하고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 김유신 장군이 끝내 허락하지 않고, 회오리바람도 이내 돌아갔다.
- ㉥ 惠恭王이 大臣을 보내 사과하고, 恩典을 내려 명복을 빌었다.

사건은 신라 37대 해공왕 기미년(779)에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미추왕은 신라 제13대 왕으로, 재위기간이 262~284년이었고, 김유신은 김수로왕 12대손으로, 생몰년이 595~673년이었다. 따라서 사건의

未四月. 忽有旋風, 從庚信公塚起, 中有一人乘駿馬, 如將軍儀狀, 亦有衣甲器仗者, 四十許人, 隨從而來, 入於竹現陵. 俄而, 陵中似有振動哭泣聲, 或如告訴之音, 其言曰, “臣平生, 有輔時救難匡合之功, 今爲魂魄, 鎮護邦國, 攘災救患之心, 暫無倫改. 往者庚戌年, 臣之子孫, 無罪被誅, 君臣不念我之功烈, 臣欲遠移他所, 不復勞動, 願王允之.” 王答曰, “惟我與公, 不護此邦, 其如民庶何? 公復努力如前.” 三請三不許, 旋風乃還. 王聞之懼, 乃遣大臣金敬信, 就金公陵謝過言, 爲公立功德寶田三十結于鷲仙寺, 以資冥福.
26) 앞 인용문에서 밑줄 친 대목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어지는 야담 <議黜院享卽被禍>에서 김유신이 忠孝를 내세워 젊은 儒生을 훈계하는 인용문과 겹쳐지는 부분이다.

전후관계를 정리해 보면, 현재 8세기 후반에 100여년 전 사망한 김유신이 거의 500년 전 세상을 떠난 미추왕을 대면했다는 말이 된다. 혼령이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미추왕의 죽현릉으로 왕래했다는 스토리의 사실성은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준마를 타고 위용을 갖추어 40여 명의 군사를 대동했다는 서술에서 또 다른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다.

바로 미추왕의 竹葉軍 설화인데, 제14대 儒禮王 때 伊西國이 침입했을 당시 귀에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적을 물리쳤으며, 싸움이 끝나자 미추왕릉 앞에 댓잎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후 미추왕은 護國靈으로 추앙되었으며, 김유신과 함께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죽어서 護國龍이 된 것과는 나란히 놓인다. 그러면 김유신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죽현릉에 찾아간 행위가 스토리 전개상 설득력을 얻으며, “지금은 혼백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재난을 물리치려는 마음을 잠시도 고쳐먹은 적이 없었다.”는 말도 공감을 자아낸다.

이처럼 김유신이 피를 토하듯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은 조선시대 야담에도 보인다. 『천예록』 소재 <議黜院享卽被禍>는 서원에 봉향된 김유신 장군의 위패를 축출하자는 유생들의 논의에 관한 이야기²⁷⁾로, 다음은 김유신이 자신의 공적과 더불어 享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목이다.

장군이 꾸짖어 말했다. “너는 이 땅에서 나고 자라 평소에 開國公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을 텐데, 네가 말하는 儒業에서 儒者에게 귀한 것이 忠과 孝 두 가지가 아니더냐? 나는 머리를 올리면서부터 나라에 몸을 바쳐왔다. 적군이 침략하여 宗主인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직접 矢石을 무릅쓰고 죽음에 맞선 적이 수차례였고, 마침내 두 적국을 평정하였느니라.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변모시켜 唐나라 天子의 위엄으로도 감히 우리나라에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공훈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니, 忠심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本朝에 큰 공로가 있는바, 나는 다만 선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始終 변함

27) 필자는 18세기 야담 중에서 신라와 경주 관련 작품을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천예록』 소재 <의출원향즉피화>도 분석 자료에 포함되었다. 이채경, 「야담집 소재 신라 및 경주 이야기 연구 - 『天倪錄』, 『雜記古談』, 『東稗洛誦』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41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3, 358-382면 참조.

없이 실천하였고, 부모가 내려주신 이름을 온전히 하여 세상에 크게 드러냈으니,孝心이 이와 같으리라. …… (중략) …… 나아말로 이 향촌의 한 선생이니라. 오늘날 서원은 바로 예전의 鄉社이고, 나를 서원에 배향하는 것은 진실로 한 고을의 公議다. 그래서 비록 退溪처럼 큰 선비도 끝내 異議가 없었거늘, 너는 뭐하는 자이기에 감히 妄言을 하고 신령을 모욕한단 말이나? 대략 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無道하기 이를 데 없구나. 내가 너를 베어서 후세의 어리석은 유자들을 징계할 텐데, 너는 후회 없으렸다!”²⁸⁾

당초에 젊은 유생이 김유신의 위패를 서원에서 축출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가 무장이라는 명분에서였다. 경주 西嶽書院에는 지금도 文昌侯 崔致遠·弘儒侯 薛聰과 함께 김유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조선후기 文武 반열의 차별이 심하던 시점에 이러한 논의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 문제를 놓고 온종일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유생은 서원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설핏 잠든 유생의 꿈에 현결찬 장부가 나타났고, 얼핏 보아도 駿馬에 갑옷과 투구며 인솔한 군사까지 그 偉容이 대단했다.

그러나 낮에는 당당히 자기 의견을 피력하던 유생이 밤에는 꿈속²⁹⁾에 나타난 김유신의 모습만 보고도 온몸이 얼어붙어 버린다. 게다가 김유신은 자신을 무장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젊은 유생에게, 유자의 최고 덕목인 ‘忠孝’를 내세워 조목 조목 반박하며 자기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죽음을 무릅쓰고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다음 삼국통일의 걸림돌이었던 당나라까지 물리친

28) 『天倪錄』, <議黜院享卽被禍>. 將軍數之曰, “汝生長此土, 素聞開國公爲何如人也, 汝稱業儒, 所貴乎儒者, 非忠孝二事乎? 吾結髮許國, 憤敵入侵軼, 宗國將危, 親冒矢石, 犯死者數, 卒乃削平二寇, 轉弱爲強, 雖以唐天子之威, 不敢加兵於我, 而吾不以爲功, 如其忠也. 吾家世有大勳勞於本朝, 吾祇奉先訓, 終始不替, 克貽父母全名, 大顯於世, 如其孝也. …… (中略) …… 吾固此鄉之先生也, 今日書院, 卽古之鄉社也. 享吾於書院者, 實一鄉之公議, 而雖以退溪之大儒, 終無異議, 汝何爲者, 乃敢作爲狂言, 侮辱神靈, 略無顧忌, 無道甚焉. 可以斬汝, 以懲後世愚儒, 汝其無悔!”

29) 꿈은 설화나 야담에서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매개로 작용하며, 꿈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현실에서 징험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꿈은 각종 奇異談 또는 神異談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데, 『천예록』 소재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강욱, 「『천예록』의 서술 방식과 서사 의식」,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329-371면 ; 이현주, 「『天倪錄』 소재 神異談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승은, 「『天倪錄』 소재 奇異談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것은 진정한 忠心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선조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부모가 물려준 遺體를 온전히 하여 입신양명한 것도 유자 못지않은 孝心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따라서 退溪처럼 위대한 유학자도 반대하지 않았던 서원향사 문제에 감히 반론을 제기한 代價로 젊은 유생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정의는 실현되었다.

위 인용문을 포함하여 야담에 담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서악서원에서 유림이 김유신 장군의 위패를 내치는 논의를 열었다.
- ㉡ 젊은 유생이 김유신 장군은 무신이기 때문에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그의 꿈에 현결찬 장부가 나타나 충효를 강조하며 자신을 변론했다.
- ㉣ 김유신 장군은 문무를 아우르는 자기 행적을 일일이 거론하며 유생을 꾸짖었다.
- ㉤ 꿈에서 깨어난 그는 다음날 정오에 피를 쏟으며 죽고 말았다.
- ㉥ 미추왕과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를 역사서에서 열람하고 신령스러움을 확신했다.

그런데 <김유신 이야기>는 설화와 야담에서 서로 다른 스토리 양상을 보인다. 설화에서 김유신 장군은 단지 미추왕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心境을 짧게 泣訴하였고, 미추왕은 그의 공업과 원망을 인정한 다음 부드럽게 그를 위무하였다. 반면 야담에서 김유신 장군은 젊고 어리석은 유생을 향해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를 변론하느라 말이 길어졌고, 유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꿈에서 깨어나 갑자기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즉, 상대가 자기 능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짧게 호소했다면, 상대가 자기 가치를 업신여기거나 업적을 무시한 경우에는 길게 논증하는 스토리텔링 양상을 보인다.

또 야담 저자는 김유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다. 바로 신라의 역사서에 실린 미추왕의 죽엽군과 김유신에 관련된 설화인데,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실려 전한다.³⁰⁾

30) 미추왕의 죽엽군과 김유신에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도 실려 전하지만, 『삼국유사』만큼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下>. 夏四月, 旋風坌起, 自庾信墓, 至始祖大王之陵, 塵霧暗冥, 不辨人物, 守陵人聞, 其中若有哭泣悲嘆之聲. 惠恭大王聞之恐懼, 遣大臣, 致祭謝過, 仍於鷲仙寺, 納田三十結, 以資冥福. 是時, 庾信平麗·濟二國, 所營立也.

하루는 우연히 신라의 역사서를 열람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혜공왕 15년(779)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신라 시조 미추왕의 무덤으로 불어왔다. 티끌과 안개로 사방이 어두워져 사람과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고, 그 능 안에서 곡하며 울고 슬프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대신을 파견하여 그 무덤에 가서祭를 올리고 잘못을 빌었다.’³¹⁾

앞서 살펴본 『삼국유사』 소재 <미추왕 죽엽군>의 내용을 여기서 간략히 기술했는데, 이것은 야담의 내용을 허황된 것이라 의심하는 독자를 위해 부록한 것으로 파악된다.³²⁾ 즉,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을 비난한 젊은 유생을 찾아가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타당치 못한 명분으로 자신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한 비현실적인 스토리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해 실제 역사서에 실린 또 다른 비현실적인 내용을 例話로 제시한 것이다.

미추왕의 죽엽군은 문무왕의 호국룡 이야기와 더불어 신라 역사상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先王의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護國談으로 손꼽힌다. 사실 김유신 장군의 호국의지도 그에 버금가는 것이었고,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나란히 겪은 조선후기 민간에서는 臨戰無退의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한 先代 김유신 장군을 추앙하는 정서가 확산되었던 듯하다. 야담은 당시 이러한 인정세태를 그대로 반영한 正義談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설화 속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새롭게 스토리텔링한 것이다.

2.2 神話와 유사한 스토리텔링

31) 『天倪錄』, <議黜院享卽被禍>. 一日, 偶閱羅史, ‘惠恭王十五年, 忽有疾風起, 自庾信墓至羅祖味鄒王墓, 塵霧晦冥, 不辨人物. 聞其中若有哭泣悲歎之聲. 王聞之恐懼, 遣大臣就其墓, 致祭謝過.’

32) 야담은 기록과정에서 이야기의 허구성을 상쇄시키기 위해 이야기 見聞過程 및 後日談을 부록하기도 했다. 필자는 본고를 준비하면서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서도 야담과 유사한 후일담과 評語를 발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여 차후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가 서양의 신화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야기 소재가 동서양 설화에서 비롯된 것들인 만큼 각 지역과 문화 및 관습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다른 양상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동일한 모티브(motive)에 흡사한 스토리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도 눈에 띈다. 그 중에 대표작은 괴물을 퇴치하고 미인을 얻은 ‘거타지’와 ‘페르세우스’ 이야기, 당나귀 귀로 알려진 ‘경문왕’과 ‘미다스 왕’ 이야기다.

2.2.1. 居陁知와 페르세우스(Perseus) 이야기 : 報恩과 結緣

<거타지 이야기>는 수많은 설화적 요소를 간직한 작품이다. 등장인물로 양패와 거타지를 비롯한 공사들 외에도 ‘서해의 신[海龍]’과 ‘늙은 여우[老狐]’ 처럼 기이한 동물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야기 속 그들은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괴롭히며, 사람에게 감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사미로 변신하여 용을 잡아먹는 괴물에 한 번 주목해보자.

이튿날 동녘이 밝자, 과연 사미가 오더니 이전처럼 주문(陀羅尼; 필자 주)을 외면서 老龍의 간을 빼먹으려 했다. 이때 거타지가 활을 쏘아 사미를 맞히자, 즉시 늙은 여우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에 노인이 나와 감사하며 말했다. “공의 은혜를 입어 내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내 딸을 그대의 아내로 주고 싶소.” 거타지가 말했다. “제게 주신다면 버리지 않을 테니, 진실로 바라던 바입니다.” 노인은 자기 딸을 한 송이 꽃으로 바뀌게 해서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두 龍에게 명하여 거타지를 모시고 사신의 배를 뒤쫓아 가서 그 배를 호위하여 唐나라 국경까지 들어가도록 했다.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의 배를 용 두 마리가 뒤에서 호위하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갖추어 위에 보고했다. 그러자 황제는 “신라 사신은 반드시 비범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연회를 열어 여러 신하들보다 윗자리에 앉히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려주었다. 나라로 돌아와서 거타지는 품에서 꺼낸 꽃송이가 여인으로 변하여 함께 살았다.³³⁾

거타지가 제비뽑기로 남겨진 섬에는 예전부터 주변 생물을 괴롭히는 사미가 살고 있었다. 그는 날이 밝으면 나타나 일반적인 승려처럼 다라니를 외지만, 사실 그것은 해룡을 수면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주문이었다. 중생을 구제하고 승려의 수행에 도움이 되어야 할 佛經이 바다 생물을 죽이고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데 사용된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다. <거타지 이야기>에는 이 아이러니를 통해 괴물의 실체를 드러내는 스토리가 전개된다.

물론 거타지가 처음부터 이러한 사건의 전말과 괴물의 실체를 알고 정의감에 불타서 사미를 죽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행선에서 쫓겨나 섬에 홀로 남겨져 할 일도 없는 데다 마침 노인이 죽음을 앞둔 사연을 들려주며 구원을 요청하였고, 또 백제의 해적을 물리치는 공사로 뽑힐 만큼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노인의 요청에 부응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괴물을 죽이고 보니, 사미는 요망한 늙은 여우가 변신한 것이었다. 여기서 마침내 스토리 전개상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괴물의 정체가 밝혀지는 동시에 그동안 악용되었던 불경이 본연의 상태로 복원되기에 이른다.

거타지가 괴물을 퇴치하고 노인의 딸을 얻는 과정이 잘 드러난 위 인용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거타지가 노인의 말을 듣고 잠복하여 사미를 기다렸다.
- ㉡ 사미가 주문을 외면서 노인의 간을 빼먹으려고 했다.
- ㉢ 거타지가 활을 쏘아 사미에게 정확히 맞혔다.
- ㉣ 사미가 늙은 여우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다.
- ㉤ 노인이 딸을 꽃송이로 만들어 거타지에게 주었다.
- ㉥ 신라로 돌아오자 꽃송이가 여인으로 변해 함께 살았다.

33) 『三國遺事』 卷2, 紀異2, <眞聖女王代居陁知>. 明日, 扶桑既暎, 沙彌果來, 誦呪如前, 欲取老龍肝. 時居陁射之, 中沙彌, 卽變老狐, 墜地而斃. 於是, 老人出而謝曰, “受公之賜, 全我性命, 請以女子妻之.” 居陁曰, “見賜不遺, 固所願也.” 老人以其女, 變作一枝花, 納之懷中. 仍命二龍, 捧居陁, 趨及使船, 仍護其船入於唐鏡, 唐人見新羅船有二龍負之, 具事上聞, 帝曰, “新羅之使, 必非常人.” 賜宴坐於群臣之上, 厚以金帛遺之. 旣還國, 居陁出花枝, 變女同居焉.

괴물 퇴치 이후에 거타지에게는 ‘노룡의 딸[龍女]’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는 또 하나의 설화적 요소가 담겨 있다. 바로 노인이 딸을 꽃송이로 만든 것과 거타지가 꽃송이를 여인으로 바꾼 것이다. 여기서 ‘꽃송이’는 여인의 미모를 대변하는 동시에 위험을 무릅쓴 데 대한 보상이 만족스러웠음을 상징한다. 나아가 거타지가 자기 特長을 살려 아무도 모르게 꽃다운 여인을 얻었으며, 그 여인과 함께 신라로 이동하는 데도 편리한 기제로 작용했다. <거타지 이야기>에 담긴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서양의 神話에서도 발견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신들의 이야기로 유명하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전지전능한 절대적 존재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질투하고 욕망하고 원망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페르세우스(Perseus)가 바다괴물로부터 안드로메다(Andromeda)를 구원한 이야기에 아주 인간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다.

먼저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하기 위해 바다괴물을 죽이는 대목부터 살펴보자.

청년 페르세우스는 몸을 솟구쳐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하늘 높은 데서 햇별을 쫓다가 뱀을 발견한 독수리가 수직으로 내리꽂혀 그 목을 물고 비틀어 뱀에게 독니를 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괴물의 등줄기로 날아내려 그 겨드랑이를 칼로 찔렀다. 상처 입은 괴물은 미쳐 날뛰다 못해 하늘 높이 몸을 솟구쳤다가 바다 속으로 쏙 들어가곤 했다. 괴물은 낭자하게 짓어대는 사냥개 무리에 둘러싸인 멧돼지처럼 좌우로 몸을 돌리며 페르세우스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는 날개 덕분에 공격을 쉬 피할 수 있었고, 비늘 사이로 맨살이 보일 때마다 옆구리와 배 그리고 등에서 꼬리 쪽으로 내려가며 닥치는 대로 푹푹 찢려 상처를 입혔다.

이윽고 괴물이 콧구멍으로 피 섞인 바닷물을 뿜었다. 용사의 날개는 그 핏물에 젖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했다. 페르세우스는 파도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암초 위로 올라가, 빼죽 솟은 칼바위에 몸을 의지하고는 가까이서 떠오른 괴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³⁴⁾

페르세우스가 괴물을 죽이는 장면은 꽤나 섬뜩하고 잔인하다. 그러나 안드로메다가 부모의 잘못으로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진 상황은 더 억울하고 잔혹한 스토리다. 그런데 거타지 이야기가 괴물을 퇴치하는 장면보다 그것을 전후하여 괴물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괴물을 죽인 뒤에 받은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페르세우스 이야기는 괴물을 죽이게 된 배경과 괴물을 죽이는 장면 자체에 더 치중한 서술 양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아마도 페르세우스의 용맹을 더욱 부각시키고, 안드로메다와 결혼하는 스토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파악된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여러 神들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아테나에게 방패를, 헤르메스에게 마법의 칼을, 하데스에게 모습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투구를 받아 메두사(Medusa)의 머리를 벨 수 있었다. 이후 페르세우스는 에티오피아에서 어머니 카시오페이아의 자만으로 신의 노여움을 받아 아버지 케페우스가 바다괴물에게 神託으로 바친 안드로메다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바위에 쇠사슬로 결박당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그녀의 부모에게 바다괴물을 처치하면 딸 안드로메다를 代價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요청을 받아들이자, 페르세우스는 용감하게 싸워 괴물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한다.

이러한 스토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카시오페이아가 님프들에게 미모를 자랑하여 신의 노여움을 샀다.
- ㉡ 케페우스가 그것을 풀려고 딸 안드로메다를 바다괴물에게 바쳤다.
- ㉢ 페르세우스가 묶여서 기절한 안드로메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 ㉣ 케페우스는 괴물을 처치하면 안드로메다를 그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 ㉤ 페르세우스가 마법의 칼로 바다괴물을 죽이고 안드로메다를 구했다.
- ㉥ 안드로메다의 약혼자 피네우스를 물리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페르세우스 이야기>는 <거타지 이야기>와 더불어 나란히 영웅담 내지는

34) 이윤기 편역,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도서출판 창해, 2009, 200면 인용.

괴물퇴치담에 속하지만, 미인을 얻는 스토리의 출발과 결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은 가족과 생명 및 殺生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여성이나 혼인 또는 보답에 대한 관습이 다르다. 그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라는 말이다. 따라서 두 이야기의 차이점도 이런 기준에서 접근하고 파악해야 옳다.

예를 들어, 거타지가 괴물을 쏘아 죽인 것은 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급한 데다 노인의 가족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개선하고 그 목숨을 구해주려는 생각에서였다. 따라서 거타지가 노인의 딸을 얻은 스토리는 처음부터 의도치 않은 부수적인 결과였으며, 거기에는 동양적 報恩과 結緣을 모티브로 한 서사가 펼쳐졌다. 그러나 페르세우스가 바다괴물을 찢어 죽인 것은 안드로메다의 미모가 뛰어난 데다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따라서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한 스토리는 그 의도에 맞춘 당연한 결과였으며, 거기에는 서양의 결투와 승리를 모티브로 한 서사가 전개되었다.

요컨대 두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은 동서양의 서로 다른 정서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타지 설화에서 거타지가 노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를 배려하는 마음과 노인이 거타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에 감사하는 방법은 페르세우스 신화와 다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당시의 민중과 저자 일연이 구현하고자 했던 불교적 慈悲와 緣起에다 동양적 보은과 결연 등이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2.2.2 景文王과 미다스(Midas) 왕 이야기 : 秘密과 發說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言語]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말과 글[文字]을 활용한다. 지금은 문자로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도 처음에는 언어로 엮어낸 구술 형태였으며, 이는 동서양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비밀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혼자 지키기 보다는 남에게 발설하기를 더 좋아한다. 따라서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기 어렵고, 비밀로서 가치를

지닌 채 남에게 알려짐으로써 널리 향유되곤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사람이 얼마나 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먼저 『삼국유사』 소재 <경문왕 이야기>부터 살펴본다.

왕은 즉위 후에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 왕후와 궁인들은 모두 알지 못하고, 오직 幞頭匠 한 사람만 알고 있었으나 평생토록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자, 道林寺 대숲 속 인적 없는 곳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후에 바람이 불면 대나무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왕이 그것을 싫어하여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었는데, 바람이 불면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도림사는 옛날 入都林 가에 있었다.】³⁵⁾

신라 제48대 景文王에 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는 많다. 그 가운데에는 제47대 憲安王의 뒤를 이어 즉위하는 과정에 현안왕의 두 딸 중 長女를 택했으므로 결국 왕위에 올랐으며, 재위 중에는 평소 침전에 매일 밤 뱀이 드나들거나 뱀이 혀를 내밀어 왕의 가슴을 덮기도 했다는 등 기이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특히, 즉위 후에 귀가 당나귀처럼 길어진 스토리는 대표 奇行異蹟에 속한다.

예나 지금이나 남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은 최측근 인물을 제외하면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 경문왕의 길어진 귀는 왕후와 궁인들조차 모르고, 오직 왕의 모자를 만드는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직무 특성상 그 비밀을 알고 있던 幞頭匠은 평생 비밀에 부쳤으나,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역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인적 없는 대숲에 찾아가 속 시원히 비밀을 털어놓았다. 불행히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 이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35) 『三國遺事』 卷2, 紀異2, <四十八景文大王>. 乃登位, 王耳忽長如驢耳, 王后及宮人皆未知, 唯幞頭匠一人知之, 然生平不向人說. 其人將死, 入道林寺竹林中無人處, 向竹唱云, “吾君耳如驢耳.” 其後風吹, 則竹聲云, “吾君耳如驢耳.” 王惡之, 乃伐竹而植山茱萸, 風吹則但聲云, “吾君耳長.” [道林寺, 舊在入都林邊]

위 인용문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왕의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
- ㉡ 궁내에서 오직 복두장이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 ㉢ 복두장이 죽을 때가 되자, 대숲에 가서 외쳤다.
- ㉣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비밀을 말하는 소리를 냈다.
- ㉤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었더니, 또 그렇게 말했다.

당시 절대 권력을 지닌 왕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고, 그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은 비밀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게 마련이다. 또 경문왕은 거짓말처럼 퍼지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진원지를 봉쇄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으나, 비밀은 묻히지 않고 조금 가벼워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素材의 이야기가 서양의 신화에서도 발견되어 무척 흥미롭다.

미다스(Midas) 왕은 ‘황금 손’으로 더 잘 알려진 신화 속 인물이다. 그는 디오니소스(Dionysos)가 소원을 들어준 덕분에 그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변하는 권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손만 대면 조약돌이나 사과는 물론 진수성찬과 가까운 사람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재앙을 경험한 뒤, 결국 부귀영화를 버리고 시골에서 살며 들의 신 판(Pan)의 숭배자가 되었다. 어느 날 판은 자기 피리 숨씨를 아폴론(Apollon)의 리라 숨씨와 겨루어 보기로 했는데, 여기서 부당하게 판의 손을 들어준 미다스는 아폴론의 보복을 받아 당나귀 귀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대목을 살펴본다.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아름다운 (아폴론의) 리라소리에 반한 트몰로스(Tmolos)는 즉석에서 리라의 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다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판정에 만족했다. 미다스는 이의를 제기하며 심판의 정당성을 의심했다. 아폴론은 것처럼 무식한 귀를 더 이상 인간의 귀 형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 귀를 길게 늘여 안팎으로 털이 나게 하고, 컷볼 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록 만들어 버렸다. 미다스 왕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다. 넓은 머릿수건을 써서 사람들이 그의 귀를 볼 수 없게 감추었으나 단 한 사람, 그의 머리를 손질해 주는 이발사만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발사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명령과 함께, 만약 명을 어기는 날에는 엄벌에 처하겠노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이발사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말하지 않고는 미칠 것 같은 지경에 이르자, 이발사는 초원으로 나가 땅에 구멍을 파고 비밀을 말한 다음 흙으로 덮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원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이발사가 발설했던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후 오늘날까지도 미풍이 그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갈대는 미다스 왕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다.³⁶⁾

위 인용문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미다스 왕이 아폴론의 리라소리를 듣고 우수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 ㉡ 아폴론이 미다스 왕의 귀가 쓸모없다며 당나귀 귀로 만들어 버렸다.
- ㉢ 미다스 왕의 이발사만 비밀을 알았으나,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 ㉣ 미칠 듯하자, 초원에 구멍을 파서 비밀을 말한 다음 흙으로 덮었다.
- ㉤ 갈대가 무성해져서 이발사가 말한 미다스 왕의 비밀을 속삭였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경문왕은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게 자랐으나, 미다스 왕은 진짜 당나귀 귀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털도 났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즉, 경문왕의 경우에는 임금의 귀가 길어서 당나귀 귀 모양이었고, 미다스 왕의 경우에는 그의 귀가 당나귀 귀 그 자체였다는 말이다. 또한 경문왕의 비밀을 아는 복두장이나 미다스 왕의 비밀을 아는 이발사나 똑같이 그 사실을 혼자 간직하기는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복두장은 대나무 숲에 소리쳐 발설했으며, 이발사는 초원에 구멍

36) 토마스 벌핀치 지음, 이윤기 옮김, 『그리스 로마 신화』, 대원사, 1989. 참조. 이윤기에 따르면, 미다스 왕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드라이든의 『바드의 아낙 이야기』에서는 미다스 왕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왕비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윤기(2009) 앞의 책 684면 인용.

을 뚫고 속삭였다는 점이 다르다. 게다가 이후에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으나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으며, 미다스 왕은 초원의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나 바람이 불면 그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두 이야기를 비교 분석하면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왜 대나무와 갈대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두 草木의 특성상 바람이 불면 ‘우수수’ 소리가 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상황을 이해해 보았다. 복두장이와 이발사가 찾아가서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더라도 대숲이나 갈대숲에 바람이 불면 두런두런 말 소리가 들리거나 소곤소곤 속삭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옛날 동양에서는 대나무를 많이 심어 생활 주변에 대숲이 조성되어 있었고, <경문왕 이야기>는 대나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야기에 적용한 것이다.

요컨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인간의 심리적 압박과 자연 환경에서 찾아낸 사물의 생태적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스토리텔링에 적극 활용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경문왕 이야기>에서 사건 당사자 경문왕은 비밀이 누설된 사실을 알고, 그러한 사태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등으로 스토리가 확장된 점이 독특하다. 저자는 설화의 환상성과 허구성에 머물지 않고 스토리에 사실성과 역사성을 더하여 스토리텔링한 것이다.³⁷⁾

3. 스토리텔링 原形으로서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대 설화를 채록한 작품집으로 후대 야담에도 영향을 끼

37)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 序頭에, “그러니 삼국의 始祖가 모두 神異한 데서 나온 것을 어찌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奇異를 여러 편 가운데 꼭 집어서 첫머리에 실은 까닭이며, 편집 의도는 여기에 있다.[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奇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저자가 당시 수많은 이야기 중에 스토리를 취사선택하여 『삼국유사』를 찬술한 의도를 분명히 밝힌 대목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 논하는 몇몇 이야기가 ‘기존 설화의 환상성과 허구성에 일연이 사실성과 역사성을 첨부한 스토리로 재창작한 스토리텔링의 흔적’이라고 파악하였다.

쳤다. 앞서 살펴본 일부 작품들은 괴물을 퇴치한 영웅담과 호국의지를 표명한 기이담 및 비밀을 발설한 세태담 등 다양한 스토리의 원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이한 현상을 다룬 이야기에 저자가 역사적 사건을 덧붙인 또 다른 스토리텔링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삼국유사』에서 기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서양의 신화에서 유사한 모티브와 스토리로 구성된 이야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동서양 스토리텔링을 비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삼국유사』가 동서양 스토리텔링의 寶庫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원형이라는 端初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논의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원형으로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첫째, <거타지 이야기>는 전대 설화에서 출발하여 후대 야담으로 전승되었다. 그 과정에서 거타지가 사행 길에 괴물을 퇴치하고 미인을 얻은 설화 속 奇異談은 화포장이 무인도에서 괴물을 죽이고 재물을 얻은 야담 속 致富談으로 변개되었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기본 스토리에 등장하는 것은 주인공과 괴물 그리고 보상이다. 즉, 거타지와 화포장은 주인공이고, 사미로 가장한 늑은 여우와 고약한 냄새를 풍기던 이무기는 괴물에 해당되며, 괴물퇴치로 주어진 미녀와 보물은 보상이다. 이 세 요건을 포함한 스토리텔링의 골격은 ‘주인공이 괴물을 죽이고 보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거타지 이야기>로 대변되는 두 이야기의 핵심적인 스토리는 결국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서양의 신화에서 페르세우스도 괴물을 죽인 보답으로 안드로메다를 얻었다. 따라서 세 편의 동서양 괴물퇴치 영웅담은 주인공이 위험을 무릅쓴 대가로 미인을 얻는 結緣談과 보물을 얻는 致富談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페르세우스 신화가 서양의 결투와 승리에 비중을 둔 스토리텔링이라면, 우리나라 설화와 야담은 동양의 보은과 성공에 훨씬 무게가 실려 있다. 게다가 그 보상은 드러나지 않고 꽃가지[花枝] 또는 原石으로 표현되며, 특히 스토리 전개상 필요에 따라 꽃과 여성이 換置되는 설화적 상상력은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원형을 담고 있다.

둘째, <김유신 이야기>도 설화에서 야담으로 전승되었다. 호국의지를 담아낸 미추왕 죽엽군 설화는 김유신이 神軍을 거느린 神將으로 등장하여 奇異談

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야담에 등장한 김유신은 武將으로서 서원에 향사된 정당성을 피력하여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正義談의 양상을 띤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기본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과 기이한 현상 그리고 정의실현이다. 즉, 역사적 인물은 김유신 장군이고, 기이한 현상은 호국신장 김유신이 거듭 등장하는 것이며, 그가 泣訴와 主張으로 자기 위상을 검증하는 과정은 정의실현에 속한다. 이 세 요건을 포함한 스토리텔링의 골격은 ‘김유신 장군이 등장하여 자기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김유신 이야기>로 대변되는 두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스토리는 결국 김유신의 등장과 기이한 현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을 유발하는 매개체는 바로 회오리바람과 꿈이었다. 죽현릉으로 불어 닥친 바람과 젊은 유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꿈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짓는 장치로서, 스토리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스토리를 견인하기도 한다. 게다가 꿈은 절대적 위용을 갖춘 김유신의 혼령이 등장하는 공간이자, 그로 인해 젊은 유생이 죽음을 맞이한 複數의 배경이다. 특히, 죽은 혼령으로서 산 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설화적 허구성을 야담으로 전이시킨 스토리텔링의 원형이라고 하겠다.

셋째, <경문왕 이야기>는 서양의 신화 미다스 왕 이야기와 더불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잘 알려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동서양의 왕들도 말 못할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기본 스토리에서 흥미로운 것은 귀가 길어진 왕과 비밀을 간직한 신하와 그 비밀을 발설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귀가 길어진 배경과 비밀을 간직한 신하의 신분과 그 비밀을 발설하는 방법 및 장소가 다르지만, 주요 소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왕들의 ‘귀’이며, ‘왜 귀인가?’ 하는 문제다.³⁸⁾

그런데 유사한 내용의 동서양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경문왕 이야기>에서 귀가 갖는 含意의 표현이 더욱 두드러진다. 귀는 소리를 듣는 인체기관으로,

38) 앞 장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논할 때는 비밀을 발설한 장소가 동서양 설화 및 신화에서 대숲과 갈대숲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두 장소 모두 바람이 불면 대[竹]와 갈대 잎이 서로 부딪혀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초목의 특성을 스토리에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낸 바 있다.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안으로 감춰지기도 한다. 또 王者라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民心을 잘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³⁹⁾ 그럼에도 경문왕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복두장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강요한 데서 기인했으며, 나중에 비밀을 들려주던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로 교체한 데서 상황이 약간 변화했다. 특히, 두 이야기의 저변에는 ‘입[口]’으로 남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약자와 자기 비밀이 ‘귀[耳]’에 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강자의 심리가 깔려 있다. 따라서 <경문왕 이야기>는 ‘귀’가 상징하는 설화적 重義性을 적극 활용한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원형이라고 해석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삼국유사』 소재 <거타지 이야기>는 ‘꽃’을 매개로 한 설화적 상상력이 담긴 작품이고, <김유신 이야기>는 ‘꿈’을 배경으로 설화적 허구성을 야담에 전승시킨 작품이며, <경문왕 이야기>는 ‘귀’가 상징하는 설화적 중의성을 적극 활용한 작품이다. 요컨대 『삼국유사』에 보이는 스토리텔링 양상은 동서양 설화 및 야담 그리고 신화 등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스토리를 交織하는 原形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서양 설화와 야담 및 신화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스토리텔링 원형으로서 『삼국유사』의 가치와 위상을 가늠해 보았다.

먼저 설화 <거타지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승되어 <화포장 이야기>를 낳았고, 스토리 성격이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기이담에서 치부담으로 바뀌었다. 또 <거타지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페르세우스 이야기>와 유사한 스토리

39) 경문왕의 경우, 즉위 후에 귀가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통해 王者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미다스왕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음악을 평가하기보다 知人을 편드는 행동으로 인해 귀가 길어지는 처벌을 받았다. 이로써 볼 때, <경문왕 이야기>는 동양적 또는 유교적 사고를 반영한 설화이며, <미다스왕 이야기>와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개 양상을 보였는데, 동서양의 서로 다른 정서와 인식을 반영한 보은담과 결연담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설화 <김유신 이야기>는 역사서에 나오는 미추왕 죽엽군 이야기를 포함해 야담에 전승되어 새로운 이야기로 변개되었으며, 당초 미추왕과 김유신의 호국담에서 이후 儒者로서 김유신의 면모를 강화한 정의담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경문왕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미다스 왕 이야기>와 흡사한 내용인데, 두 이야기는 모두 비밀과 발설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압박과 사물의 생태적 특징이 기저에 깔려 있으며, 특히 <경문왕 이야기>는 王者가 민심을 듣는 신체기관으로서 ‘귀’를 강조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설화와 야담의 전승관계를 밝히고, 서양의 신화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보고이자 원형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본고는 『삼국유사』에서 가려 뽑아 조선후기 야담 및 그리스 신화와 비교한 작품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차후에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또 다른 연구 성과로 발표할 예정이다.

[ABSTRACT]

『Samgukyusa』 and the storytelling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Eastern and Western stories

Lee, Chae gyeong

In this article, I comparatively analyzed storytelling aspect of Yadam and myths from the east and the west. Furthermore, I judged value and stature of 『Samgukyusa』 as a original form of storytelling.

Firstly, <A tale of Geotaji> was passed down to <A tale of Hwapojang> as a Yadam and was changed its sort from strange story to story of making fortune thereby reflecting social aspect of those days. Also <A tale of Geotaji> has similar story development with <Story of Perseus> from Greek myths. It shows contents about repaying favor and making relationship presenting different sentiments and cognizances of the east and the west. In sequence, <A tale of Kimyusin> had been altered to new tale by transmission including <A tale of King Michu Jukyeopkun> which could found in history. It originally was a story about protection of country by king Michu and Kimyusin but thereafter it had been changed to story about right ideals of Kimyusin as a confucian scholar. Lastly, <A tale of King Kyeongmun> has similar substance to tale of king Midas from Greek myths. Both tales based on emotional pressure about revealing secrets and object's ecological features. Furthermore, especially <A tale of King Kyeongmun> emphasizes king's 'ear' as a organ of listening public sentiment.

Therefore, 『Samgukyusa』 is a repository of storytelling that could discover transmission relation between tale and Yadam furthermore can find common features between western myths. And it is evaluated as a original form of Korean storytelling.

Key Words : 『Samgukyusa』 , Tale, Yadam, Myth, Storytelling, Original Form, etc.

참고문헌

□ 기본자료

- 一 然, 『三國遺事』, 규장각본
金富軾, 『三國史記』, 정덕본
柳夢寅, 『於野談』, 만종재본
任 墜, 『天倪錄』, 천리대본

□ 단행본

- 김정희,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이윤기 편역, 『별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도서출판 창해, 2009.
이강옥,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일연 지음,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07.
임방 저, 정환국 역,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토마스 불관치 지음, 이윤기 옮김, 『그리스 로마 신화』, 대원사, 198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엮음,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도서출판 아시아, 2008.

□ 논문

- 박유미, 「〈진성여왕대 거타지〉 설화에 나타난 사회구조와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119-147면
엄태웅, 「『삼국유사』 「기이」 편과 바다」, 『동북아문화연구』 제48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6. 65-85면
이규훈, 「‘거타지’ 설화의 문화콘텐츠 창작과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119-127면
이승은, 「『天倪錄』 소재 奇異談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채경, 「야담집 소재 신라 및 경주 이야기 연구 - 『天倪錄』, 『雜記古談』, 『東稗洛誦』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41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3. 358-382면
_____, 「18세기 야담의 서사방식과 주제구현 - 『雜記古談』, 『東稗洛誦』, 『雪橋漫錄』, 『鶴山閑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傳奇小說 插入詩의 미학적 의미」, 『국제언어문학』 제35호, 국제언어문학회, 2016.
이현주, 「『天倪錄』 소재 神異談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전기웅,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大王居陁知’조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제 38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217-251면

정연식, 「거타지 설화의 새로운 해석」, 『동방학지』 제160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169-209면

정환국, 「한국 초기서사의 複數 구도」, 『민족문화사연구』 제59집,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147-182면

표정옥, 「『삼국유사』 스토리텔링의 문화콘텐츠 생성 욕망과 신화적 독서의 생산성 연구 - 서정주의 <삼국유사> 해석의 시정신을 중심으로」, 『동방학』 제27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3. 7-38면

이 논문은 2018년 3월 29일 접수되어 4월 20일까지 심사받아 4월 23일 게재 확정됨.

